

2. 디지털미니랩 시장 동향 및 전망

사진시장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디지털미니랩의 급성장 예상

고도의 기술 집약체인 디지털 미니랩 장비는 국내에서 이미 아그파, 후지, 코니카, 노리츠사 등 여러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다툼을 하고 있고 올해 사진시장의 급속한 디지털화와 더불어 최고의 활황이 예상되고 있다.

글/아그파코리아(주) 소비자영상사업부 김동우 부장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공황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산업의 기초인 컴퓨터와 IT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사진, 인쇄 그리고 그래픽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디지털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디지털 카메라의 수요증가와 아날로그 카메라의 감소 추세(APS 카메라 포함)가 이를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디지털 카메라의 증가 추이는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각 카메라 메이커들의 공식적인 자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2001년 미니랩 판매동향 및 2002년 전망

아그파코리아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인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와 2001년의 국내시장에서의 미니랩 판매대수 중 세미(Semi)

〈표〉국내시장의 미니랩 판매 동향

연도	아날로그	세미(Semi) 디지털	디지털(100%)	총계	아날로그 : 디지털(%)
2000	99	27	39	165	40% : 60%
2001	63	36	102	201	30% : 70%

*자료 : 아그파코리아(주) 자체 지표

디지털장비를 포함한 디지털장비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에는 전체 시장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비율은 40:60 수준이었으나, 2001년에는 30:70 수준으로 디지털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올해는 이보다 더욱 성장한 20:80 수준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미니랩업계 동향 및 최근 기술동향

고도의 기술 집약체인 디지털 미니랩 장비는 국내에서 이미 여러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다툼을 하고 있다.

우선 유럽의 사진 강국인 독일 아그파와 일본의 후지, 코니카 그리고 장비 전문 브랜드인 노리츠사 등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각 브랜드와 기종별로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나 디지털 미니랩 장비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특히 디지털사진 출력의 생명이 라고 할 수 있는 노광(주사)방식은 크게 레이저, LED 그리고 CRT 방식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그 중 화질 비교에 있어서 가장 표현력이 디

테일한 레이저 방식이 일반 아날로그 사진의 품질을 능가하는 테크놀로지이며 디지털장비중 가장 많이 채택된 방식이다.

레이저 노광(주사) 방식의 디지털 장비가 갖춰야 할 또 하나의 핵심포인트는 고감도 레이저 은염인화지와 디지털 전용 케미컬이다. 일반 아날로그 인화지의 감도는 미니랩용 할로젠 램프 기준 광원에서 10^{-3} 초(Millisecond) 이내에서 인화지에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반면, 레이저 인화지는 10^{-6} (Nanosecond) 이상에서 이미지를 노광(주사)함으로써 콘트라스트 및 컬러의 심도(디테일)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디지털미니랩

아날로그 사진과 그 품질에 익숙해왔던 기성 사진 세대에게 가장 의문시되어 왔던 디지털사진의 출력 품질이 기대치 이상의 결과를 보임에 따라 디지털장비에 대한 투자의 흐름은 2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비 자체의 소프트웨어 이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추가 소프트웨어의 투자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나, 각 투자자의 개성에 따라 다소 기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한 사진전문 잡지에서 아시아권에서 디지털 사진서비스를 한국보다 먼저 시작한 일본의 경우 디지털 비즈니스를 추가한 이후로 매출이 35~40% 이상 신장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본적이 있다. 국가와 문화적으로 상이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 부가가치의 아이টে은 별반 틀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편집된 사진, 슬라이드 인화, 특수 편집 웨딩, 베이비 앨범, 학교 앨범, 광고용 인쇄물 출력, 디지털 증명 및 여권사진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টে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장비의 최대출력 사이즈 역시 큰 경쟁력의 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국내 실정에 굳이 맞춘다면 최대 12"×18" 사이즈의 사진출력이 가능하다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신기술의 습득과 응용, 투자만이 디지털시대에 대응

최근 투자자들이 디지털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필자도 동감하고 있다. 사실 과거 아날로그 장비의 투자금액에 비해 디지털장비의 투자금액은 무려 2배 이상 웃돈다. 더욱이 사진의 현상 인화가격은 20년 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해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 물가는 꺾일줄 모르고 나날이 치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인 모두가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디지털 미니랩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무수한 부가가치 아이টে을 쏟아놓을 것이라는 착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장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노력 없이 디지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컴퓨터 앞에 앉아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는 것이 한국사진시장에서 앞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